

AI LITERACY CLASS

대학 생활 치트키: AI 완전정복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이드

복잡한 과제와 팀 프로젝트 때문에 고통받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쉽고 강력한 AI 활용법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질문: 과제하다가 울고 싶은 적 있나요?

대학 생활의 로망은 짧고, 현실의 과제는 길니다.

우리는 매번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습니다.

😭 우리의 혼한 현실

- "시험 기간에 밤새워 쓴 리포트가 날아갔을 때의 절망감"
- "팀플 자료가 카톡방 만료로 열리지 않을 때의 당혹감"
- "자료는 찾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시작도 못 하는 막막함"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이 비효율적 이기 때문입니다.



멘붕 상황 1: 파일 삭제의 공포

"어? 저장 안 했는데... 컴퓨터가 꺼졌어!"

3시간 동안 영혼을 갈아 넣어 작성한 리포트.

갑작스러운 블루스크린이나 실수로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속의 백지를 보며 느껴지는 그 허탈함을 아시나요?

❌ 문제의 원인

우리는 여전히 '수동 저장(Ctrl+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멘붕 상황 2: 자료의 늪 (정보 과부하)

"그 자료 어디 있더라? 분명 봤는데..."

과제를 위해 웹 브라우저 탭을 10개씩 띄워놓습니다.

블로그, 뉴스, 위키백과를 오가며 정보를 긁어모으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중요하고, 출처가 어디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 문제의 원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만 에너지를 다 쓰고,
정작 중요한 '정리와 구조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멘붕 상황 3: 백지 공포증 (Blank Page Syndrome)

"첫 문장을 도저히 못 쓰겠어..."

PPT를 켜놓고 하얀 화면만 30분째 멍하니 바라봅니다.
제목은 썼는데, 본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결국 유튜브를 보거나 짤짤을 하게 됩니다.

❌ 문제의 원인

'0에서 1'을 만드는 창작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전문 작가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빈 종이'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일할까?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서로 **단절(Disconnection)**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의 방식 (따로국밥)

1. 웹 검색: 크롬에서 자료 찾기
2. 문서 작성: 메모장에 복사 붙여넣기
3. 편집: 워드/PPT 켜서 다시 정리
4. 공유: 카톡으로 파일 전송

→ 도구가 바뀔 때마다 흐름이 끊기고 시간이 낭비됩니다.



해결책: AI라는 '아이언맨 수트' 입기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최첨단 수트를 입고 나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AI = 여러분의 능력 증폭기 (Amplifier)

AI는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는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시간 걸릴 일을 5분 만에 끝내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이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트를 입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코딩을 몰라도, 컴맹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말(Chat)'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오늘 배울 3단계 워크플로우

복잡한 건 딱 질색입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 Design

"무엇을 만들까?"
AI와 대화하며 기획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Gemini, ImageFX)



2. Build

"어떻게 만들까?"
AI 비서에게 시켜서
문서를 완성합니다.
(Copilot)



3. Keep

"어떻게 지킬까?"
금고에 저장하고
공유합니다.
(Cloud, Git)

잠깐! '생성형 AI'가 도대체 뭔가요?

뉴스를 보면 맨날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겠죠? 간단합니다.

검색 (Search)

우리가 평소에 하던 구글링입니다.
"강남역 맛집 알려줘"라고 물으면,
맛집 리스트가 있는 **블로그 링크 10개**를
던져줍니다.
→ **링크를 하나하나 눌러보고,
읽고, 정리하는 건 100% 나의 몫입니다.**



생성 (Generative AI)

이게 바로 오늘 배울 AI입니다.
"강남역 맛집 추천 보고서 써줘"라고 물으면,
정보를 종합해서 **새로운 글(Report)**을
써줍니다.
→ **정리된 결과물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죠.

파트너 1: 제미나이 (Gemini)

🧠 역할: 똑똑한 대학원생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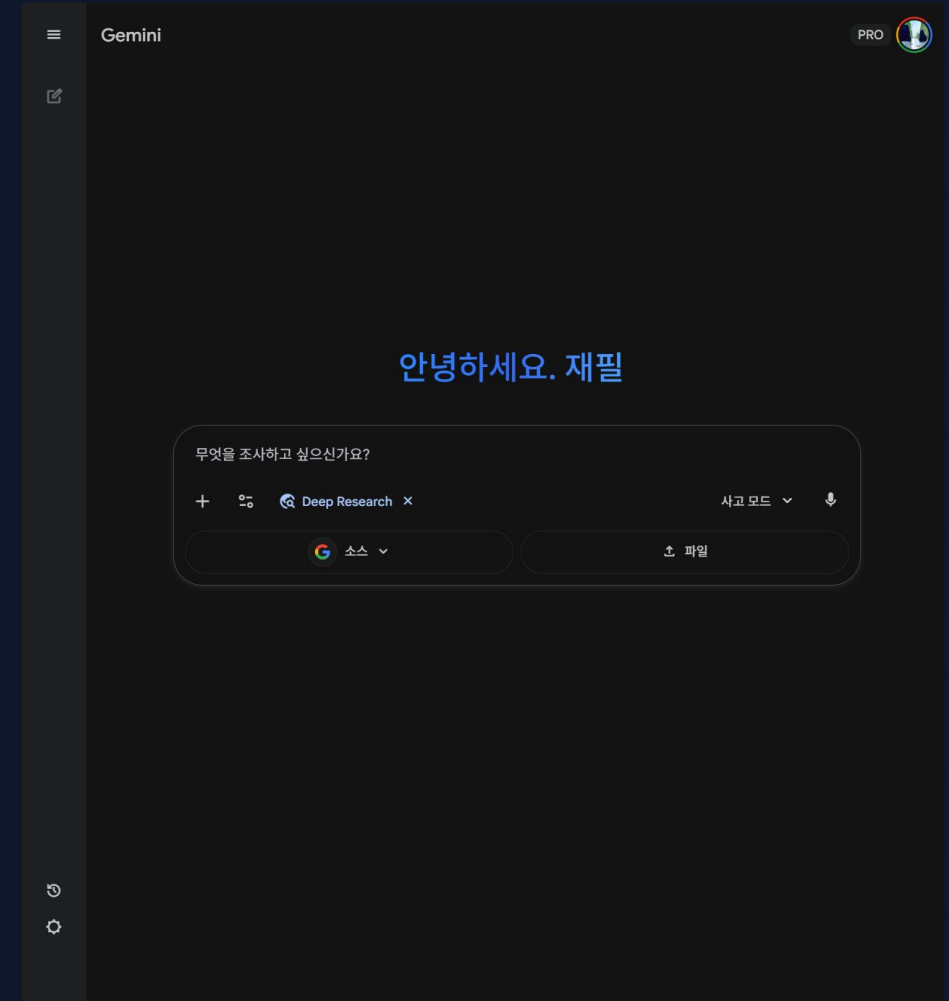
구글에서 만든 최신 AI입니다.

마치 도서관에 사는 박학다식한 선배 같습니다.

모르는 게 없고,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 특징

- 방대한 자료 조사 및 요약
-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
- 논리적인 구조(목차) 설계



파트너 2: 코파일럿 (Copilot)

⚡ 역할: 손 빠른 행정 비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PPT, Word, Excel) 안에 살고 있는 비서입니다.
창의력은 제미나이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문서 양식을 만들고 꾸미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 특징

- 워드 문서를 PPT로 자동 변환
- 복잡한 엑셀 수식 작성
- 이메일 요약 및 초안 작성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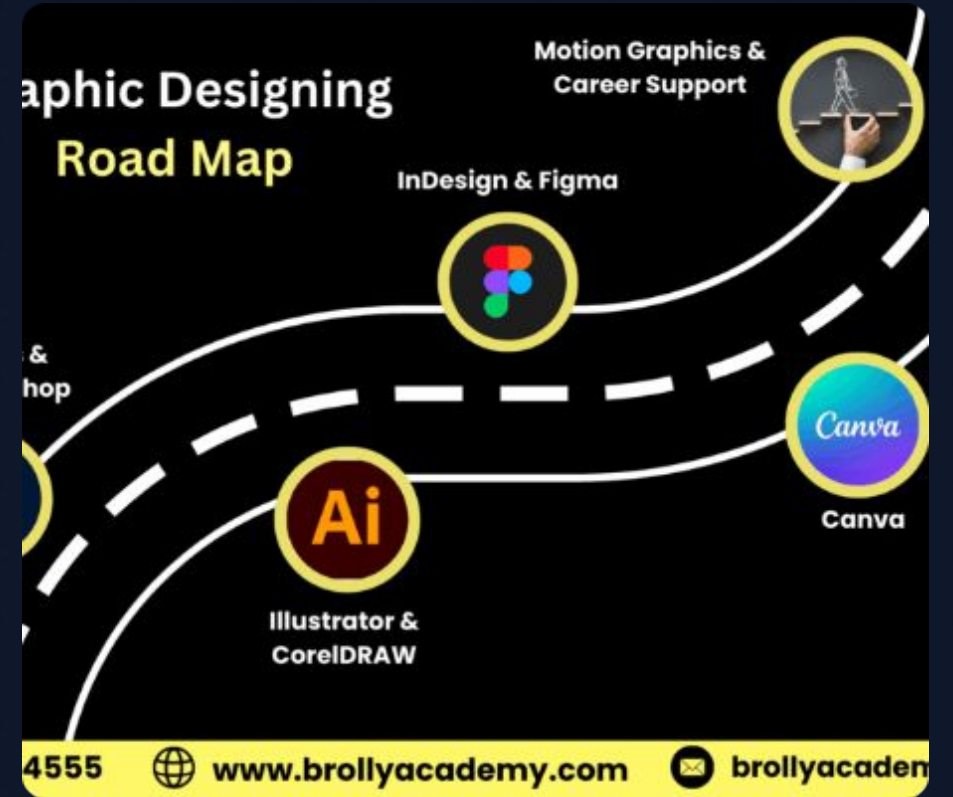
Design:

기획하기

무작정 파워포인트부터 하지 마세요.

"무엇을 만들 것인가?"

AI와 대화하며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입니다.



개념: 프롬프트 (Prompt)란?

AI에게 입력하는 '명령어' 또는 '질문'을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식당의 [주문서]와 똑같습니다.

🤖 AI는 셰프(Chef)입니다.

여러분이 손님이고 AI가 요리사라면,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주문'입니다.

"주문을 잘하면 미술랭 요리가 나오고,
주문을 대충 하면 정체불명의 요리가 나옵니다."



비유: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는다

✗ 나쁜 주문 (Bad Prompt)

"아무거나 맛있는 거

줘."

(직원 속마음: 매운 거? 짠 거? 알레르기는?
가격대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제일 싼 거 주자.)

결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이

나옴.



○ 좋은 주문 (Good Prompt)

"따뜻한 국물 요리, 안 맵게, 고수

빼고."

(직원 속마음: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손님 취향에 딱 맞는 쌀국수를 대령하겠습니다.)

결과: 내가 딱 원하던 음식이 나옴.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너무 짧게 쓴다

혹시 과제할 때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축제 기획안 써줘."

이렇게만 쓰면 AI는 여러분이 어느 대학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타겟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소리'만 늘어놓게 됩니다.

"구체성이 없으면 AI는 멍청해집니다."

실패 없는 주문 공식 1: 페르소나 (Persona)

AI에게 가면(역할)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냥 "AI야"라고 부르지 말고, 전문가로 빙의시키세요.

🧙‍♂️ 역할 부여 예시

"너는 지금부터 **10년 차 대학 축제 기획 전문가**야."

또는

"너는 **간간한 마케팅 전공 교수님**이야."

"너는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에디터**야."

전문가 역할을 주면 AI가 사용하는 **단어의 수준**과 **지식의 깊이**가 확 달라집니다.



실패 없는 주문 공식 2: 배경 설명 (Context)

구체적인 상황과 제약 조건을 알려주세요.

범위를 좁혀줄수록 AI는 더 날카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상황 설정 예시

- "예산은 **5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 "타겟은 **20대 초반의 서울 소재 대학생**이야."
- "이번 축제의 핵심 컨셉은 '**친환경 (Eco)**'과 '**디지털**'이야."

제약 조건이 없으면 AI는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예: 예산 10억짜리 드론쇼)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없는 주문 공식 3: 미션 (Task)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를 꼭 집어서 말해주세요.
그냥 "알려줘"가 아니라 "작성해줘"라고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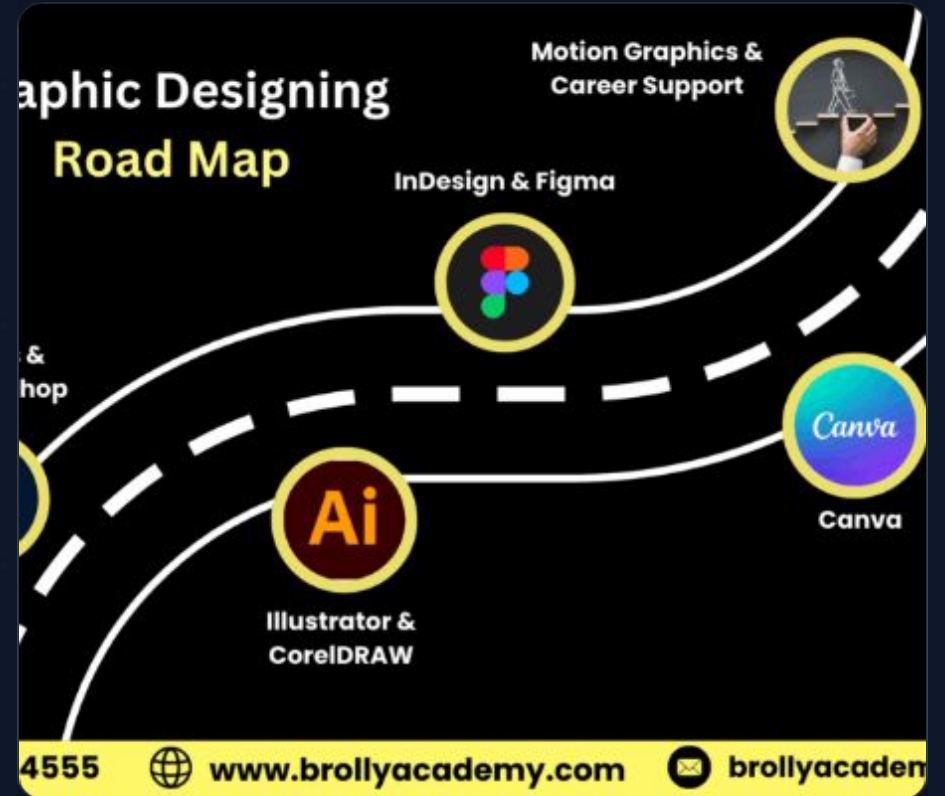
📝 구체적 지시 예시

"참신한 프로그램 3가지를 추천해줘."

"특히, 각 프로그램의 실행 방안과 기대 효과를 포함해서
[표(Table)]로 정리해줘."

'표로 정리해줘'라는 말은 마법의 주문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보기 좋게 구조화해주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좋은 프롬프트' 예시

앞서 배운 3가지 공식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대학 축제 기획 전문가(Persona)**야.

서울 소재 대학의 **예산 500만 원 규모 친환경 축제(Context)**를 기획하려고 해.

MZ세대에게 인기 있을 만한 프로그램 3가지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기대 효과를 포함해서 **표로 작성해줘(Task).**"

이 문장을 복사해서 Gemini에게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훨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Gemini가 작성한 표 (실제 화면)

단 10초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프로그램명	실행 방안	기대 효과
달빛 영화제	잔디광장에서 개인 텀블러 지참 시 입장, 빔프로젝터로 환경 영화 상영	일회용품 감소 및 낭만적인 캠퍼스 분위기 조성
에코 폴리마켓	학생들이 안 입는 옷을 가져와 교환하거나,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굿즈 판매	자원 순환 인식 제고 및 학생 참여 유도
자전거 발전소	자전거 페달을 밟아 솜사탕 기계를 돌리는 체험형 부스 운영	에너지의 소중함 체험 및 이색적인 재미 제공

* 실제 Gemini가 생성한 답변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글만 있으면 지루합니다

🧠 뇌과학 팩트

사람의 뇌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60,000배

더 빨리 이해하고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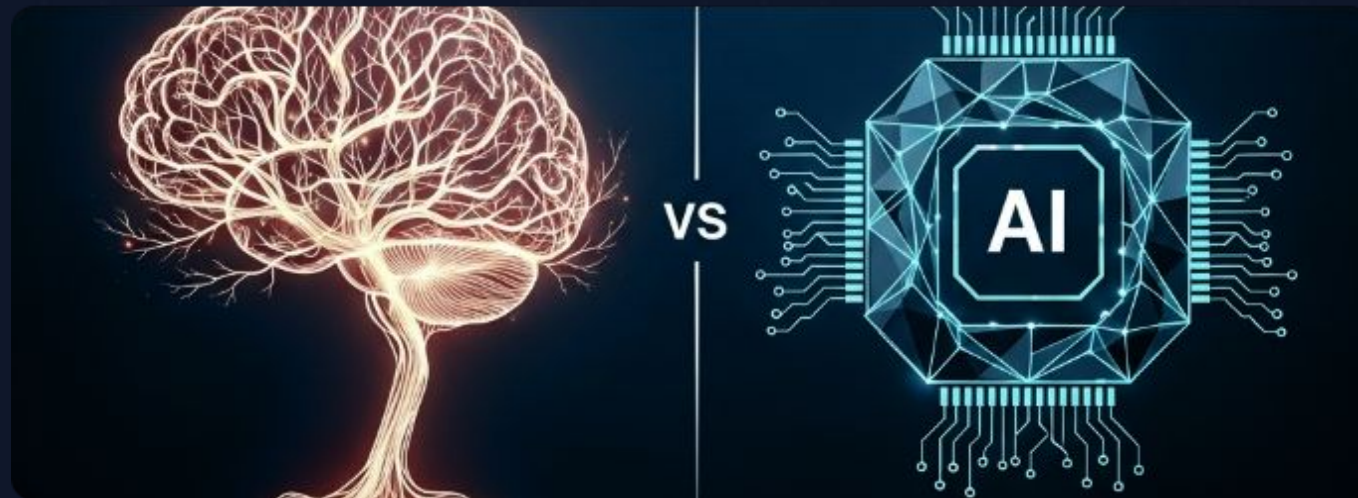
기획안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글씨만 백백한 PPT는 교수님도, 친구들도 읽기 싫어합니다.

집중력이 3초 만에 흩어지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빛내줄

'시각화(Visualization)'가

필요합니다."



도구 소개: ImageFX (내 전용 AI 화가)

구글에서 만든 최신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상상을 텍스트로 설명하면, 고화질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 ImageFX가 좋은 이유

- 저작권 걱정 **NO**: 구글링한 이미지가 아니라, AI가 새로 창작한 이미지라
- **내 맘대로 수정**: "네온 사인 추가해줘", "파란색으로 바꿔줘" 등 수정이 가능합니다.
- **무료 사용**: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실습: 텍스트로 그림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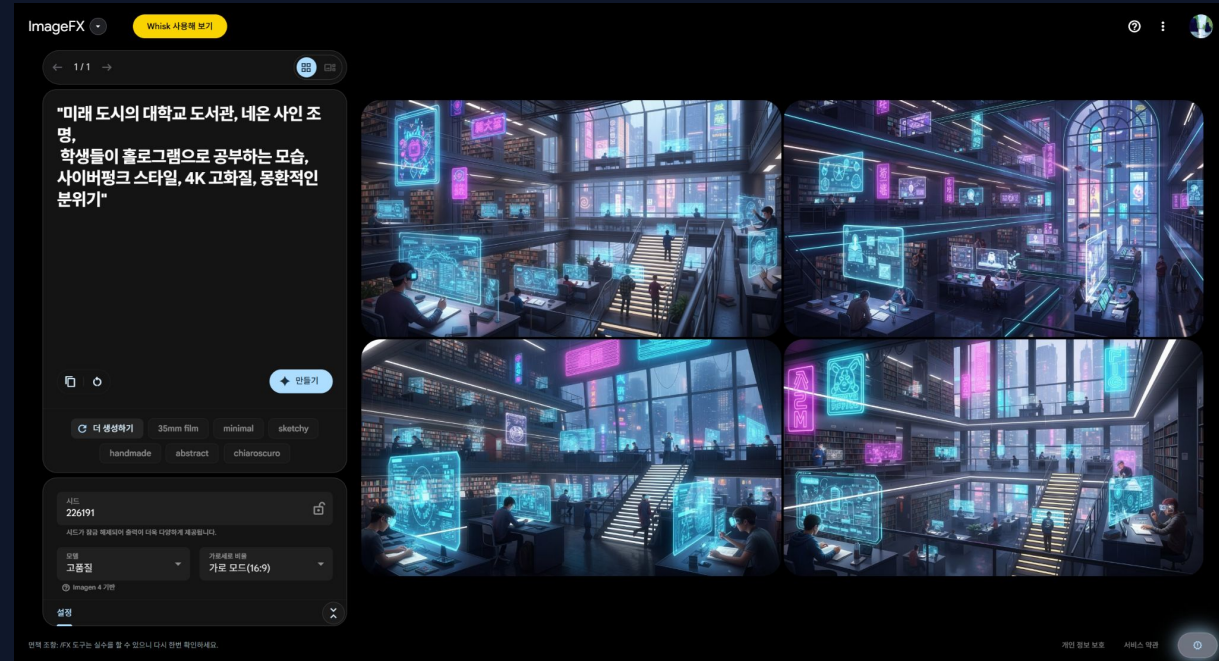
사용법은 제미나이랑 똑같습니다.

채팅창에 묘사하고 싶은 장면을 자세히
입력하세요.

입력 예시 (Prompt)

"미래 도시의 대학교 도서관, 네온 사인 조명,
학생들이 홀로그램으로 공부하는 모습,
사이버펑크 스타일, 4K 고화질, 몽환적인
분위기"

Tip: 스타일(화풍)을 지정해주면 더 좋습니다.
(예: 수채화, 3D 렌더링, 실사 사진, 픽셀 아트
등)



결과: 세상에 하나뿐인 이미지

엔터를 누르고 10초만 기다리면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며칠 걸려 그린 듯한
고퀄리티 이미지가 4장 생성됩니다.

이 이미지를 PPT 표지나 배경으로 써보세요.

발표의 퀄리티가 순식간에 프로급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워터마크 박힌 사진 찾지 마세요."



STEP 2

Build: 제작하기

기획은 끝났습니다.

이제 AI 비서에게 시켜서 문서를 똑딱
만들어봅시다.

"복사 붙여넣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개념: 자동화 (Auto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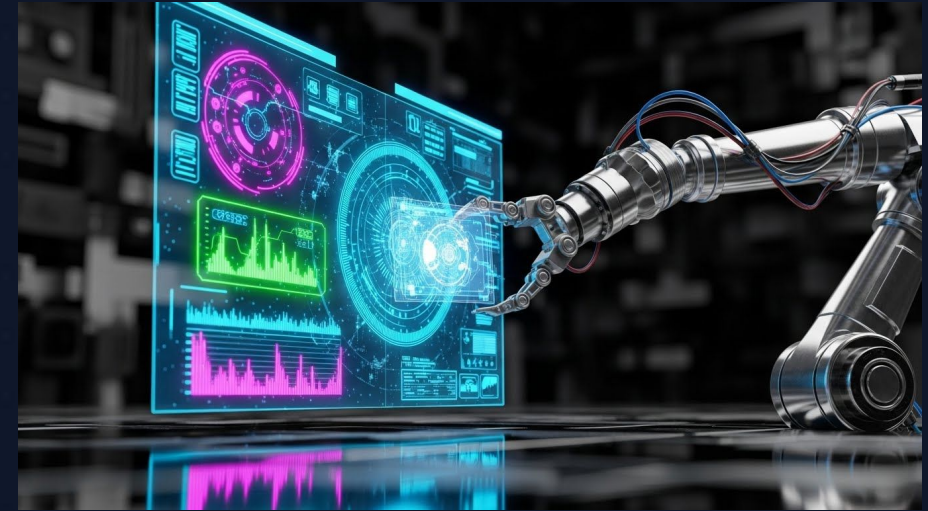
단순 반복 작업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복사-붙여넣기'와 '꾸미기'는 기계가 제일 잘합니다.

스마트한 역할 분담

- **사람 (Boss):**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고(기획), 결과물을 확인(검수)
- **AI (Intern):**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디자인한다.

우리는 이제 '**작성자 (Writer)**'가 아니라 '**감독 (Director)**'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보는 '백지 공포증'

PPT를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건

'첫 번째 슬라이드'를 채우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하지? 폰트는 뭘 쓰지?

목차는 어떻게 구성하지?

이런 고민 하느라 1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해결책: 초안(Draft) 전략

AI에게 시켜서 **0.5(절반)**를 먼저 만드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보다 10배
쉽습니다.



실습: 1분 만에 슬라이드 만들기 (Step 1. 요청)

Gemini에게 '캔버스(Canvas)' 기능을 활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프롬프트 입력

"기획안을 바탕으로
강의용 슬라이드를 생성해줘."

단순히 텍스트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형식으로 내용을 구조화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획안] 대학 생활 치트키: AI & 클라우드 스마트 워크플로우

부제: 과제 삭제의 공포는 끝! Gemini, ImageFX, Copilot, GitHub로 완성하는 초개인화 학습 전략

1. 기획 개요

가. 기획 의도

대학생과 교직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도구의 '단절'입니다. 자료 조사는 웹에서, 문서 작성은 한글/워드에서, 저장은 USB나 카톡으로 제각각 이루어지다 보니 파일 유실 사고가 빈번하고 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본 특강은 최신 생성형 AI(Gemini, ImageFX, Copilot)와 클라우드 협업 도구(Docs, Git)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자료 조사부터 최종 산출물 보존까지 끊김 없이 수행하는 '통합 워크플로우***를 전수하고자 합니다.

나. 교육 대상 및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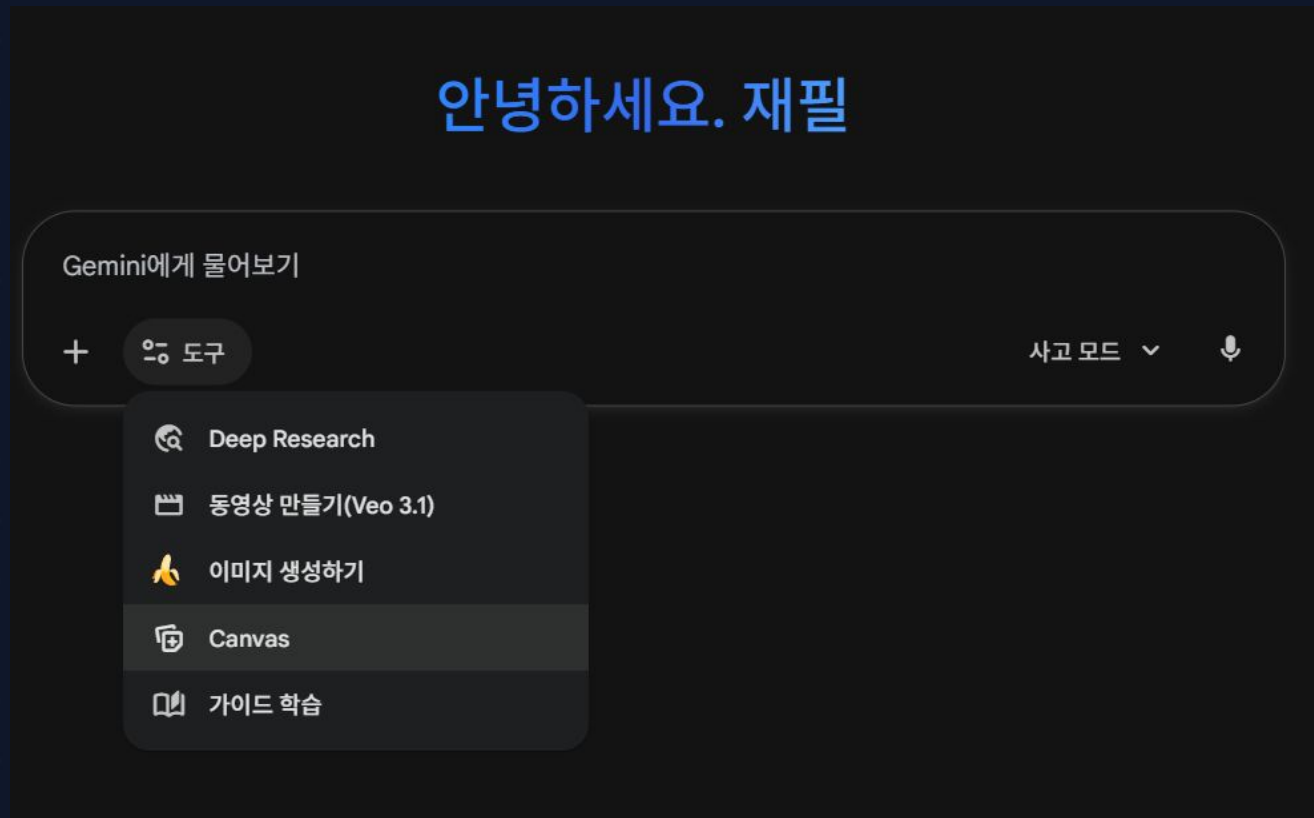
- 대상: 본교 재학생(전공 무관), 교수자, 행정 직원 등 IT 비전공자
- 형식: 30분 내외의 고밀도 화면 녹화 강의 (온라인 VOD)
- 난이도: 기초 (코딩 지식이 없어도 수강 가능)

2. 핵심 교육 전략: 3단계 워크플로우

단순히 개별 도구의 사용법을 나열하는 매뉴얼식 교육을 지양하고, 하나의 과제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5대 에듀테크 도구를 익히도록 구성했습니다.

- 1단계: 설계 (Design) - AI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고(Gemini), 고품질 시각 자료를 생성하여(ImageFX) 기획의 초석을 다집니다.
- 2단계: 구현 (Build)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PPT/Word)와 데이터(Excel/Markdown)를 자동 생성하고 검증합니다.
- 3단계: 보존 (Keep) - 완성된 결과물과 작업 과정을 클라우드에 영구 저장하고 팀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실습: 1분 만에 슬라이드 만들기 (Step 2. 캔버스 열기)



답변 하단이나 메뉴에 있는
'캔버스에서 열기(Open in Canvas)' 버튼을
클릭하세요.

캔버스(Canvas)란?

채팅창은 '대화'하는 곳이라면,
캔버스는 '문서를 직접 만들고 편집하는
작업대'입니다.

왼쪽엔 대화창, 오른쪽엔 문서 편집창이
동시에 열립니다.

실습: 1분 만에 슬라이드 만들기 (Step 3. 생성)

캔버스 모드에서 "이 내용으로 슬라이드 만들어줘"라고 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 긴 줄글이 여러 장의 슬라이드 카드로 변환됩니다.
- 각 슬라이드에 맞는 제목과 본문이 자동으로 나뉩니다.
- 복잡한 내용이 보기 좋게 요약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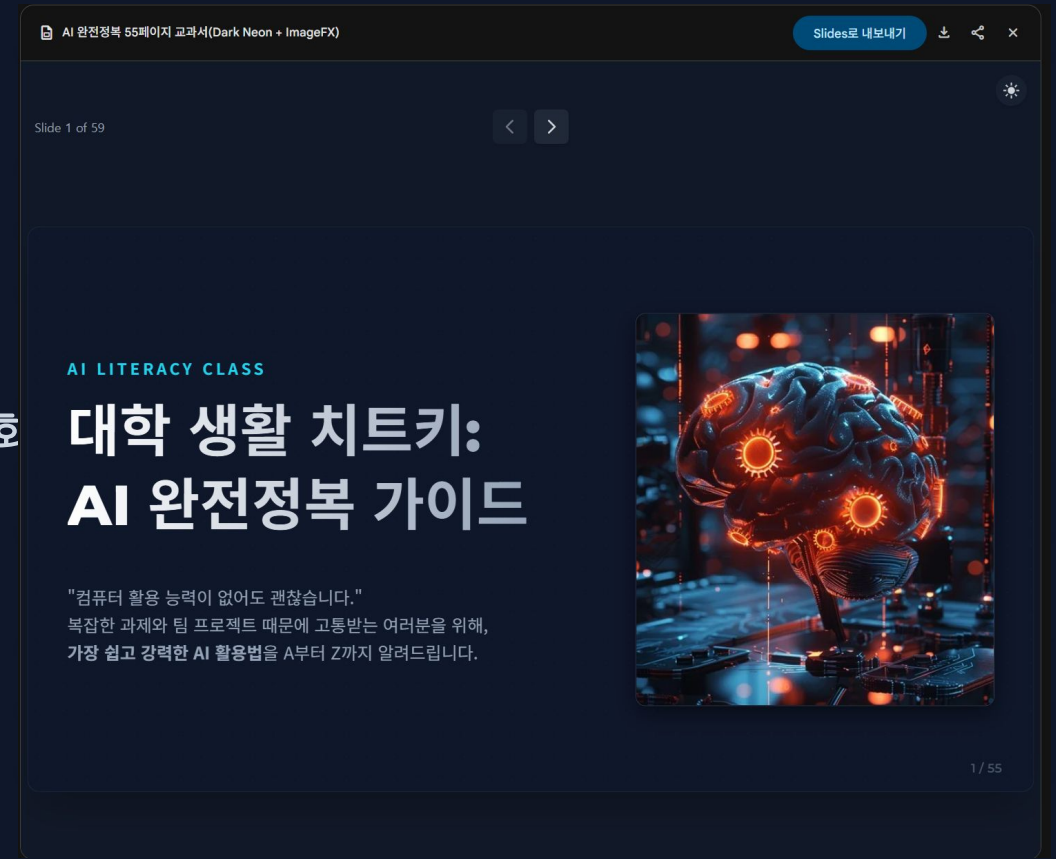
"텍스트 덩어리가 발표 자료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실습: 1분 만에 초안 완성!

짜잔! 10장 분량의 PPT 초안이 똑딱 만들어졌습니다.

- 물론 100% 완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10배 빠릅니다.**
- 이제 여러분은 폰트를 바꾸거나, 아까 **ImageFX**로 만든 고풍한 이미지로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워크플로우입니다.



실습: 1분 만에 슬라이드 만들기 (Step 4. 다듬기)

AI가 만든 초안을 내 입맛대로 수정합니다.



🔧 캔버스 편집 기능

- **내용 수정:** 텍스트를 클릭해서 바로 고칠 수
- **이미지 추가:** "여기에 어울리는 이미지 넣어줘" 라고 하면 ImageFX가 그림을 그려 넣어줍니다.
- **레이아웃 변경:** 슬라이드 순서를 드래그해서 바꿉니다.

실습: 1분 만에 슬라이드 만들기 (Step 5.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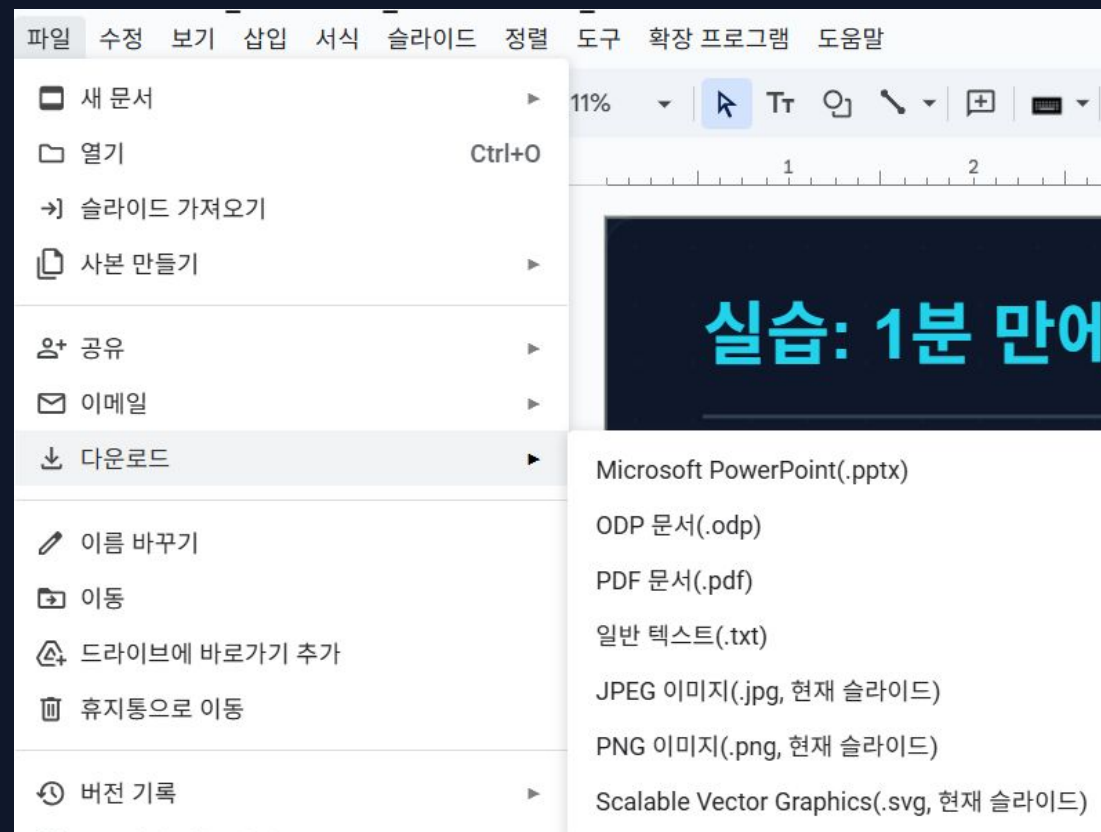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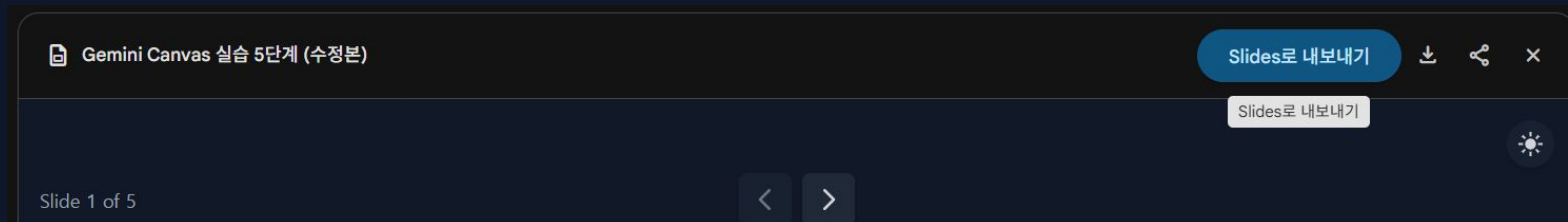
이제 완성된 자료를 꺼낼 차례입니다.

내보내기 (Export)

우측 상단의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PDF로 저장]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저장된 PDF 파일은 폰트가 깨질 염려도 없고,
어떤 컴퓨터에서든 똑같이 보입니다.

과제 제출용으로 완벽한 포맷이죠.



심화: 엑셀도 AI가 한다? (GitHub Copi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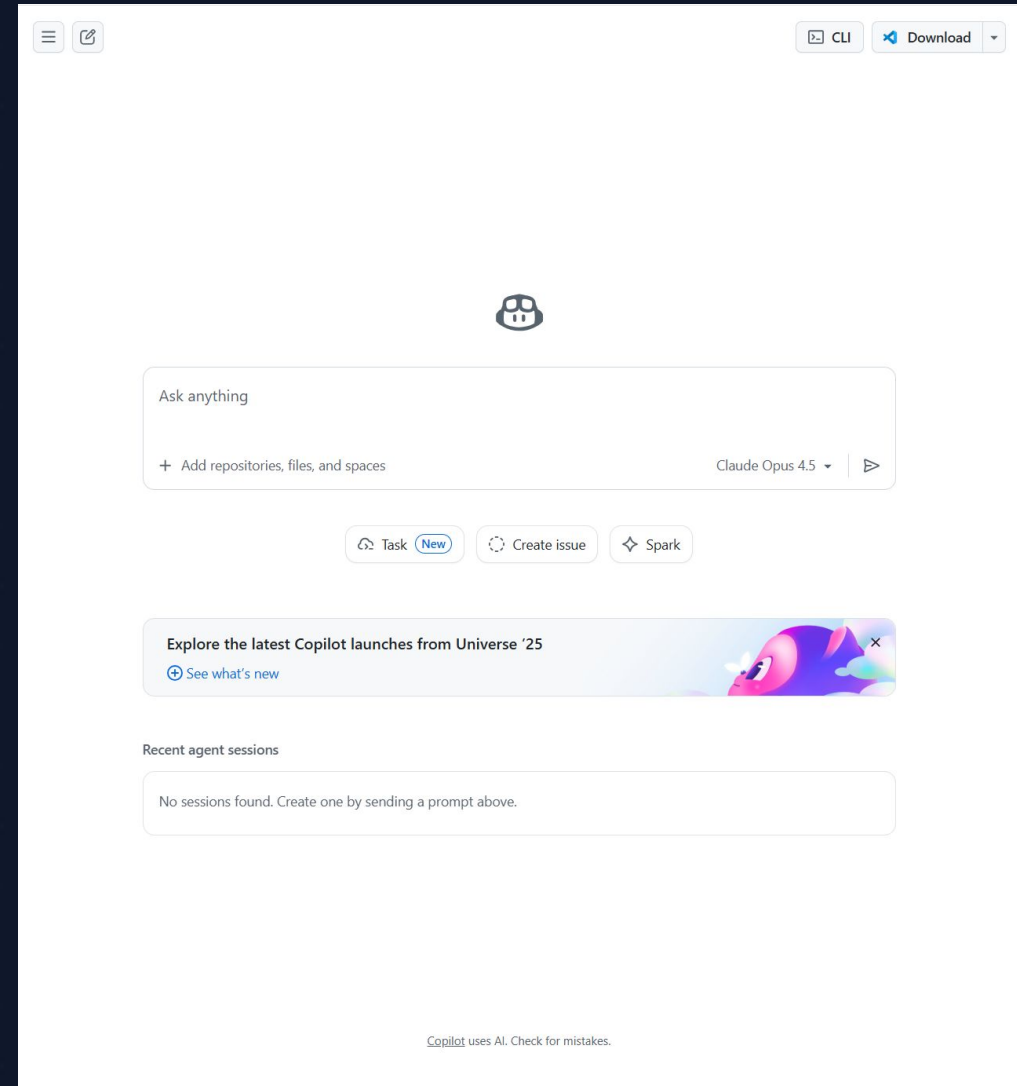
PPT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영원한 숙제.

가장 골치 아픈 **엑셀(Excel)**도 AI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구: GitHub Copilot / ChatGPT

원래는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쓰는 도구지만,
엑셀 수식(함수)을 짜는 데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복잡한 계산 과제, 이제 겁먹지 마세요.



엑셀이 어려운 이유: 함수를 몰라서

우리가 엑셀을 포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식** 때문이죠.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수식**

```
=IF(A1>100, VLOOKUP(B2, Sheet2!A:B, 2, FALSE), "Error")
```

이걸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말'**로 설명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해결: 말로 하면 수식이 나온다

AI에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물어보세요.

나의 질문 (자연어)

"예산 500만 원이 A1 셀에 있는데,
이걸 4:3:2:1 비율로 나누는 수식 좀 짜줘."

AI의 답변 (엑셀 수식)

=A1 * 0.4 (200만원)

=A1 * 0.3 (150만원)

=A1 * 0.2 (100만원)

=A1 * 0.1 (50만원)

여러분이 할 일은 저 수식을 복사해서 엑셀에 붙여넣는
것뿐입니다.

AI도 가끔은 헛갈릴 수 있어요 (Hallucination)

AI는 나쁜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대답하려다 보니 가끔 '꿈을 꾸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환각(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AI는 정해진 답을 찾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다음에 올 가장 자연스러운 말'을 추측하는 **확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존재하지 않는 그럴싸한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기계의 고장이 아니라, **생성형 AI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환각을 예방하는 3단계 안전장치

그렇다고 AI 사용을 겁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듯, 간단한 **확인 습관**만 가지면 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꿀팁

- 출처 요구하기: "이 정보의 출처 링크를 함께 알려줘."
- 역할 지정하기: "사실에 기반해서만 대답해줘."
- 교차 검증하기: 중요한 통계나 수치는 구글 검색으로 더블

체크!

"여러분의 '검증'이 더해질 때, AI는 완벽한 파트너가 됩니다."

STEP 3

Keep: 보존하기

기획하고 만들었으니, 이제 지켜야죠.

힘들게 만든 자료를 날려먹지 않도록

'타임머신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합시다.



지옥의 파일명: 도대체 뭐가 진짜야?

바탕화면에 이런 파일들, 솔직히 있으시죠?

과제_초안.ppt

과제_수정본.ppt

과제_최종.ppt

과제_진짜최종.ppt

과제_진짜최종_제발마지막_v3.ppt 😱



이렇게 관리하다가 실수로 '진짜최종'에 '초안'을 덮어쓰기라도 하면?
밤샘 작업이 물거품이 됩니다.

개념: 클라우드 (Cloud) = 내 방이 아닌 금고

'내 컴퓨터 (Local)'에 저장하지 말고,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 (Cloud)'에 저장하세요.

☁ 클라우드의 3가지 장점

- 안전성: 노트북을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도 파일은 살아있습니다.
- 접근성: 폰, 태블릿, PC방 어디서든 로그인만 하면 내 파일을 열 수
- 공유: 친구에게 파일을 보내지 않고 '초대'만 하면 됩니다.



변화: 파일을 보내지 말고 '링크'를 보내라

❌ 옛날 방식 (File)

카톡으로 '과제.ppt' 파일을 전송함.
친구가 수정해서 다시 보냄.
내가 또 수정해서 다시 보냄.
→ 버전이 꼬이고 파일이 섞임.



○ 요즘 방식 (Link)

구글 독스나 노션의 '링크(URL)' 하나만 던져줌.
모두가 하나의 문서에 들어와서 작업함.
→ 파일은 오직 하나뿐. 꼬일 일이 없음.

장점 2: 자동 저장 (Auto-save)

이제 **Ctrl+S** 지옥에서 해방되세요.



실시간 백업

글자 하나를 입력할 때마다

클라우드 서버에 0.1초 만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작업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어도, 노트북 배터리가 나가도
여러분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도구 소개: Git (깃)

"Git? 그거 개발자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문과생도, 예대생도 써야 합니다.

Git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타임머신"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모든 역사(History)**를 기록해서,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시나리오: 대참사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오후 5:00)

마감 1시간 전, 내용을 수정하다가 실수로
핵심 슬라이드 5장을 삭제 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상태에서 '저장'까지
눌러버렸습니다.

Git이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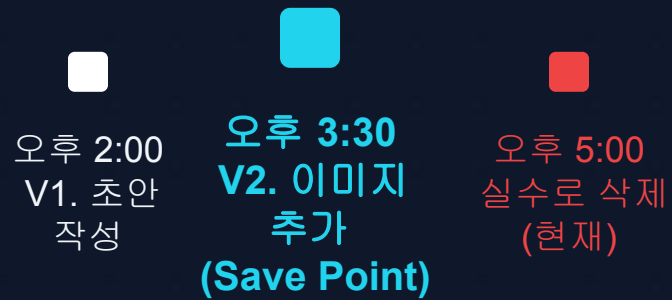
→ 망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기억을 더듬어 써야
합니다.

Git이 있다면?

→ 괜찮습니다. 아까 3시에 꽂아둔 깃발로 돌아가면
됩니다.

해결: 타임머신 타고 복구하기

Git의 타임라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2로 되돌리기 (Revert)" 버튼만 누르면
문서가 3시 30분 상태로 1초 만에 복구됩니다.

오늘의 요약 1: Design (기획)

Gemini & ImageFX

- 혼자 고민하지 말고 **AI와 대화하며**
- 프롬프트 3요소(페르소나, 배경, 미션)를
기억하라.
- **기억하라.**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설득력을
높여라.

오늘의 요약 2: Build (제작)

MS Copilot & GitHub Copilot

- 초안 작성과 단순 반복은 **AI 비서**에게 맡겨라.
- 엑셀 수식은 외우지 말고 **자연어**로 물어봐라.
- 사람은 AI의 결과물을 **검증(Fact Check)**하는 데 집중하라.

결론: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세요

좋은 도구(AI)는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Connect your workflow,
Unleash your potential."**

워크플로우를 연결하고,
여러분의 진짜 잠재력을
폭발시키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 오늘의 미션 (Mission)

1. 지금 당장 **Gemini**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안녕? 너는 누구야?"라고 **말을** 건다.
3. 그 작은 대화가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바꿀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하고 행복한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